

'99년 새해엔 이런 책 쓰겠다

9인의 저자·작가가 말하는 '나의 저술구상'

온갖 난관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발언은 멈추지 않는다. 좋은 글들은 책문화의
견고한 뿌리다. 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각계 9인의 간략한 구상을 들어본다.

새로운 지식인상 모색

이정우 ·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가 우연히 한꺼번에 완성되어, 올해는 여러 권의 책을 낼 수 있게 됐다. 이미 완성돼 출간을 기다리는 책이 3권이고, 현재 저술하고 있는 책이 2권이다. 올 1월 말경 나올 예정인 《인간의 얼굴》은 정체성 상실시대의 인간 정체성 모색과 새로운 지식인상(像)의 정립을 위해 썼다. 3월 말경 출간예정인 번역본 《의미의 논리》는 들뢰즈의 주저로서 3년에 걸쳐 번역이 완성됐다. 이와 나란히 출간될 《시물라크르의 시대》는 내가 이화여대에서 강연한 것을 녹취, 정리한 것으로 후기 구조주의, 특히 들뢰즈의 사유를 다룬다. 현재 저술중인 저작으로는 《라이프니츠와 우리》, 《허수아비》가 있다. 《라이프니츠와 우리》는 역시 이화여대에서의 강연을

녹취, 정리해 펴낼 예정이며 2권 분량의 비교적 방대한 저작이 될 것 같다. 이 저술에서 라이프니츠와 칸트, 라이프니츠와 주자, 라이프니츠와 들뢰즈, 라이프니츠와 현대과학 등과 같이 전통·근대·탈근대의 사유들을 비교함으로써 탈근대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 그동안 쓴 시(詩), 평론, 강연문, 또 내가 서강대를 떠나게 된 사연 등을 모아 《허수아비》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문학작품을 써보고 싶다. ◆

서울 100년의 정리

김석철 · 아카반 대표

베니스에 있으면서 그동안 서울서 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이 밤 12시까지 열려 있어 모처럼의 긴 시간을 만끽한다. 세가지 책을 올해 매듭지를 작정이다. 그 하나는 1900년부터 2000

년에 이르는 서울 100년을 정리한 《100 Years of Seoul》을 영문으로 내는 일이다. 서울을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릴 책이 아직 없다. 5년간 준비해온 일이다.

다음은 《세계 건축기행》을 쓰기 전부터 준비해온 《세계 도시기행》을 정리하는 일이다. 도시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맞아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도시를 다녀온 기록 위에 도서관의 많은 자료를 더하고 그중 일부 도시는 다시 찾아보면서 쓰고 있다. 《세계 건축기행》과 좋은 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틈틈이 써온 《생각의 노트》를 정리하고 있다. 생각의 편린 속에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즐거움이 크다. 그림과 글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어지는 상형문자 같은 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

시골 느티나무 이야기

김용택 · 시인

섬진강의 바뀐 모습을 담아 전에 냈던 산문집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를 2권으로 증보할 계획이다. 1~2월경, 열림원에서 나올 이 책에는 사진을 많이 실어 '보는' 산문집으로 꾸민다. 또 초등학생들이 쓴 동시집을 엮어 2월경 출간할 예정이고 어른을 위한 동화도 한 권 준비중이다. 동시집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온암초등학교 마암분교 학생들 모두가 쓴 동시를 모은 것이고

어른을 위한 동화는 주로 내가 어린시절 자라왔던 성장과정을 배경으로 다룰 생각이다.

그 외에 그동안 써온 산문을 책으로 묶을 생각이고 유아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책 2권도 준비중이다. 한 권은 시골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책은 집에서 자란 오리와 밖에서 자란 천둥오리가 만나 서로 잘 지낸다는 이야기다. ◆

백범 바로세우기

도진순 · 창원대 사학과 교수

세기말 1999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정전협정체제의 민족문제가 재정립돼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남북관계가 미국 및 동북아 주변 열강과의 관계정립과 맞물려 적잖은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분단전후 통일운동의 선구자였던 백범에 대해, 그간의 조사·연구를 정리해 두 권의 책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가제 《백범과 월인천강(月印千江)》으로 물구나무서 있는 백범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본인의 연구성과를 책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제 《백범의 만년 어록》이다. 백범의 만년 어록은 통일민족주의의 원류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 《백범일지》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그간 몇 번 출간된 적이 있는데도 굳이 다시 내고자 하는

〈謹賀新年〉

새해에도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 원 장 尹亮重
사무처장 金德和

〈謹賀新年〉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맞아
범국민적인 과학 대중화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과학기술 문화가
꽃피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 장 유광중
사무국장 문형동

〈謹賀新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 장 임만호
사무국장 방주석



것은, 만년 어록의 비중과 아울러 그간의 출간본에 적잖은 착오와 누락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 권의 책이 출간되면 나는 일단 백범을 떠날 것이다. 21세기 한반도의 또 다른 연구과제를 찾아서. ❖

정체불명의 신과학 비판

조환규 · 부산대 전자계산학과 교수

사실 남들이 훌륭하게 쓴 책도 제대로 읽기 힘든 마당에 내가 새로이 한권을 더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새해에는 정신수양과 인내력 고양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관심이 가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인문학적, 정서적인 반성에 관한 지난 글을 정리해보고 싶다. 그리고 최근 정체불명의 신과학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 사조에 대한 비판서를 정리해서 번역이나 저작을 하고 싶다. ❖

돌에 새기는 이미지

장석남 · 시인

지난해에 세번째 시집 《젓은 눈》을 냈기 때문에 다음 시집은 시간이 좀 지나야 묶

일 듯하다. 올해에는 그간 써왔던 산문을 모아 산문집을 펴낼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책이 될지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올해 안에 나올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돌에 새긴 이야기'라고 해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짧은 단문들을 쓰는 일에 주력한다. 도장을 새기는 데 쓰는 돌에다 내가 쓴 시 등에서 뽑은 이미지들을 새기고 그 이미지에 글을 덧붙이는 식의, 말하자면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셈이다. 따라서 이렇게 내 이미지를 돌에 새기고 글로 풀어쓰면서 소일할 생각하는 게 올해 내 저술계획이랄 수 있을까. ❖

경제위기 극복의 연구검토

이병천 ·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제도경제연구회'는 지난해 발간한 《위기 그리고 대전환》에 연속되는 새로운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의 작업이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편입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위기의 성격해명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올해 작업의 무게중심은 위기극복 방안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현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개혁을 부문별로 검토하는 동시에, 경제정책의 전반적 지향을 검토하고 평가해보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현정부의 정책과 경제철학

에 대한, 민주 진보적인 정책대안과 이념적 방향을 탐색할 계획이다. 이 작업 속에는 디제이노믹스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워싱턴 합의,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제3의 길'론, 라인형 자본주의, 아시아 통화기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포함될 예정이다. ❖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신경숙 · 소설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세번째 장편 《기차는 7시에 떠나네》(문학과지성사)를 펴낼 생각이다. 짧은 시절, 2년 가량의 기억을 잃어버린 여자가 자신과 똑같은 상태에 처한 조카가 사랑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여기에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출현하는 등 오컬티즘적 요소를 담았다. 아마도 이제까지 내가 써온 소설적 요소의 총집합체가 될 것 같다.

이 장편소설의 출간 외엔 뚜렷하게 잡은 계획이 없다. 올해엔 일단 그간 좀 멀어졌던 중단편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문집 같은

것도 잡아놓은 것은 많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악마가 되지 못한 사람

김영하 · 소설가

그간 써왔던 단편작품을 모아 3월경에 두번째 작품집을 펴낼 계획이다. 또 내 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수상작품집이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하이텔 문학관에 《악의 꽃》이란 장편을 연재하고 있다. 순수한 악마가 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2월말까지 이 소설에 주력한 뒤, 책으로 펴낼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올해 안에 나올지는 미정이다.

그 뒤부터 쓸 장편소설도 현재 구상중이지만, 머릿속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 어떤 것을 쓸지 말하기가 곤란하다. 아마도 이 책 역시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쓰던 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단편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장편으로 만들 생각도 있다. ❖

〈謹賀新年〉

대학학문의 발전과
대학지성의 보루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회장 金容德
부회장 李鍾國
사무국장 李圭一

〈謹賀新年〉

다시금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두영
부회장 정기영
부회장 진교훈
사무총장 조원호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독서문화 보급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도서보급(주)

대표이사 宋教善